

KOSPI
1,923.42
(-67.05)

미·중국發 악재 '검은 월요일'

서브프라임·환율·유가 총체적 압박에 투자심리 급격 위축

"1860선까지 떨어진다" 불안감에 연말장세 조정 길어질 듯

주식시장이 뉴욕증시의 급락 등 잇따른 대외악재로 인해 3% 넘게 폭락했다.

12일 코스피지수는 직전 거래일(9일) 대비 67.05포인트(3.37%) 급락한 1,923.42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한 지난 8월 16일의 125.91포인트(6.93%)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코스닥지수도 24.31포인트(3.12%) 급락한 754.73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코스피지수 1,900선이 위협받기도 했지만 막판 낙폭을 줄여 60일 이동평균선(이하 이평선)이 걸쳐 있는 1,860선은 지켰다.

◇미 금융시장 위기가 주요인=전문가들은 미국 금융시장 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투자자들이 지난 8월 글로벌 시장을 강타했던 서브프

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시장의 충격이 재연되거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풀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투자증권 황창중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시장의 급락이 국내시장 악재의 1차 주요인"이라며 "특히 최근 해외 주요시장에 비해 하락폭이 적었던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 사이 3.51% 정도 하락한 데 비해 미국의 다우지수와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같은 기간 각각 5.96%와 7.52%나 급락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3차례나 2,000선을 돌파했으나 안착하지 못한 점, 지난주를 거치면서 화학·철강, 일부 조선주 등 주도주 역할을 해온 중국 관련주들이 약화되고 있는 점도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차 지지선 1,920선, 2차 지지선은 1,860선대 될 듯=전문가들은 향후 급락세를 멎을 수 있는 기술적인 지지선과 관련해 1차 지지선으로 60일 이평선이 있는 1,920선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차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120일 이평선(12일 현재 1,864선)이 걸쳐져 있는 1,800선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재훈 대우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아직 추세를 이탈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60일과 120일 이평선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서브프라임 충격과 환율 및 유가 등 악재들이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월말 지표와 연말랠리가 기대되는 이달말까지 2주 정도의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오현석 투자정보파트장은 "미국 금융시장 위기에 중국 긴축우려까지 겹쳐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미국 대형 금융기관의 파해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커서 1,900선도 자신할 수 없다"면서 "120일 이평선이 있는 1,860선까지는 하락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수능일, 증시 개·폐장 1시간씩 순연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실시되는 15일 주식시장의 개장, 폐장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

은행간 외환시장 개장 시간도 1시간 늦춰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2일 "점규시장은 오전 10시~오후 4시로 변경되며 시간외시장은 장개시 전 오전 8시30분~9시30분, 장종료 후 오후 4시10분~4시30분으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장 종료 후 시간외 대량매매나 단일가 매매거래의 종료시점은 현행과 같은 오후 6시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15일 은행간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추기로 하되 폐장 시간은 원래대로 오후 3시로 했다.

/연합뉴스

직장인 62% "회사서 소외감 경험"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직장인 1천238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61.6%가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응답은 20대 57.1%, 30대 65.5%, 40대 71.4%, 50대 74.3% 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62.1%는 '소외감 때문에 퇴사나 이직을 고려해 본 적도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소외감이 느껴질 때로(복수응답) '업무의 진행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53.8%)를 가장 많이 꼽았다.

'퇴근 후 술자리 등 모임에 안부를 때'(23.1%), '함께 식사할 동료가 없을 때'(18.2%), '회사자리에서 대화 상대가 없을 때'(17.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인들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휴식시간에 회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46.0%), '인사를 먼저 하고'(39.4%), '함께 점심을 먹는'(23.3%)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득점 기원 수능 상품 등장

오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광주신세계 이마트 등 광주지역 대형마트에는 수험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고득점을 기원하는 초콜릿과 엿 등 다양한 수능

상품이 등장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30대 기업 임원 평균 나이 51세

잡코리아는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출생연도에 계제된 임원 2천365명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이 만 51세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연령별로 50대(55.7%)와 40대(41.2%)가 주를 이뤘다.

60대는 2.3%, 30대는 0.7%였다.

최고 연장자는 롯데쇼핑 대표이사인 신격호 회장이 만 85세였으며, 반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아들인 대한항공의 조원태 상무보는 만 31세로 연령이 가장 낮았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타운으로 불러주세요"

광주신세계 오늘부터 명칭 변경

광주신세계가 13일부터 '광주신세계타운'으로 거듭난다.

광주신세계는 "백화점과 이마트, 패션스트리트가 결합된 복합쇼핑몰 개념을 넘어 인근 버스터미널의 유통스퀘어를 아우르는 광주의 쇼핑메카를 강조하기 위해 광주신세계타운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이마트가 공동으로 광고지 전단 및 DM(다이렉트 메일)을 제작해 고객에게 발송하는 등 그동안 별도로 해온 마케팅을 통합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과 이마트의 외관 표시물 및 내부 이미지도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그러나 "(주)광주신세계라는 법인명은 그래도 유지하고 회사의 로고 등 CI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도시 근로자 소득 격차 더 커졌다

상위 20% 하위의 5.41배

지난해 동기比 0.12P 올라

가계소비지출도 8% 증가

주석의 영향으로 3·4분기 소득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소비지출과 조세지출의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가계수지 통계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3·4분기 소득증가율은 7.4%인 반면 소비지출 증가율은 8.0%를 기록했고 조세지출증가율은 14.0%에 달했다.

또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전국가구의 경우 7.52배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27포인트 증가한 5.41배로 작년동기보다 0.12포인트 올라 약화됐다.

전국가구의 3·4분기 월평균 소득은 328만2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늘었으며 소비지출은 222



만8천원으로 작년동기대비 8.0% 증가해 소득보다 소비의 증가율이 높았다.

3·4분기 소득증가율 7.4%는 작년동기 3.5%에 비해 3.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석의 이동(지난해 4·4분기→올해 3·4분기)에 따라 상여금이 포함된 근로소득과 응돈수입이 포함된 비

경상소득이 각각 작년동기대비 7.8%, 29.4% 증진했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소득은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활동의 부진으로 0.4% 증가에 그쳤다. 소비지출증가율은 8.0%로 작년동기의 0.7%에 비해 7.3%포인트 뛰었으며

역시 주석의 영향과 소득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항목별 소비지출을 보면 응돈지출이

포함된 잡비(34.4%)와 교양오락(11.5%), 가구가사(9.3%), 식료품(7.3%)

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4.9% 증가했으며 실질소비지출은 5.5% 늘었다.

도시근로자기구의 월평균 소득은 373

만8천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9.2% 늘었고 소비지출은 238만원으로 10.2% 뛰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니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고민해우정(주)	경리회계직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11/14	062-682-8387
롯데제과주나두루종부사업소	롯데제과주나두루 판매 아르바이트(전남대 후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4	042-931-6443
㈜크리미제과 광주영업소	사무 경리직 인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1/14	062-952-0853
월드부페	예약실, 행사매니저, 조리부 각 1명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5	062-251-7800
진선통신(주)	SK텔레콤 광주지점 고객CS직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1/15	062-233-9626
㈜금당약품	[사무직/전남대병원건너편]사무관리/전산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5	062-223-6681
영클립 포토 스튜디오	촬영보조 및 포토샵작업 시원(주말일비)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6	062-651-9897
우암돌산	[영업직/생산직]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6	062-603-0061
㈜아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서부고객센터 상담대(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1/19	062-601-7213
㈜아이티엑스와이아이	(GS계열사) IT부문 신입 및 경력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0	02-2189-6708
ctpia호남지사	편집디자인(MAC) 실사출격기사	고졸/경력2년	1400~1600	11/20	062-453-5000
한국자원공업(주)	설계담당 및 생산기술담당	대졸/경력6년	3600~3800	11/22	062-958-3316
㈜에스비기업	토목엔지니어링 및 토목건설업 일반 사무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30	062-652-2354
㈜한국정보 전대점	매장판매/고객상담/개통업무/개통센타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30	062-527-5400

(광주집코리아 512-6210 제공)

가입할 땐 묻지도 않더니…

보험사들 고지의무위반 들어 지급 거절 일쑤

금감원, 서면고